

주한 체코대사님은 ‘한국문학광’

(좌)

번역시·소설 수십권 읽은 야로슬라브 울사 대사

관광 도시 프라하로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체코는 사실 유서 깊은 문화의 나라다. 프란츠 카프카와 밀란 쿤데라 같은 세계적인 작가를 배출했다. 세계적인 출판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발행 서적의 종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인구 1000만여 명의 소국이지만 지난해에만 1만7000여 종의 새 책이 출간됐다. 체코에선 수백 권의 컬렉션은 갖춘 개인 도서관이 집집마다 폭 있다. 이런 체코의 대사이니 문학에 대한 관심은 당연할지 모른다.

한국에 부임한 지 두 달 된 신임 야로슬라

SF 소설집도 펴낸 작가 출신

양국 출판·영화 교류 힘쓸 것

브.울사 2세(44·사진) 주한체코대사의 문학 사랑은 특이하다.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체코에서 출간된 한국 시와 소설 번역본 30여 종을 대부분 수집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문학에 깊은 애정이 있다. 그런 울사 대사를 최근 대사관저에서 만났다.

“고은 시인의 시집이 스웨덴어와 체코어로 번역돼 출간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1947년에 체코에서 소설가인 김남천 씨의 작품이 체코어로 번역돼 출간됐답니다. 김남천 씨는 50년대 월북해서 북한에서 종살



당했지요.”

한국 문학에 대한 그의 지식은 전문가 수준이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아시아에 문학 전반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연구가여서 항상 아시아를 동경했어요.”

그의 아버지 야로슬라브 울사 1세는 68년 체코의 자유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 뒤에 이어진 소련의 체코 침공 때 저항하다 대학서 제적당했다. 민주화 이후 북린대 93~98년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냈다. 울사 대사는 외교관이 되기 전 공상과학(SF) 열간지를 창간하고 편집장을 했던 이색 경력 이 있다. SF문학 백과사전과 25개국 SF 소설 선집, 정치 SF 소설을 번역하거나 펴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이 대사로 재직했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잠비아, 발라위의 소설을 번역해 출판하거나 예술·역사에 관한 서적을 직접 쓰기도 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더 많은 체코인과 한국인들에게 서로 문화를 알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체코어회가 한국극대대에 설립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배출된 체코 어 구사 인력이 수천 명에 이를 겁니다. 이를 활용해 앞으로 더 많은 체코 문학을 한국에 알려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체코 출판자와의 작가들은 이공과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할 계획이다. 영화 교류도 늘리고 싶어한다. SF 작가 경력을 살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체코 영화의 참여도 추진중이다.

울사 대사는 “체코는 특히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영화의 세계적 강자”라며 “부산 영화제에도 더 많은 체코 영화가 출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지영기자 choijy@joongang.co.kr